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즐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겨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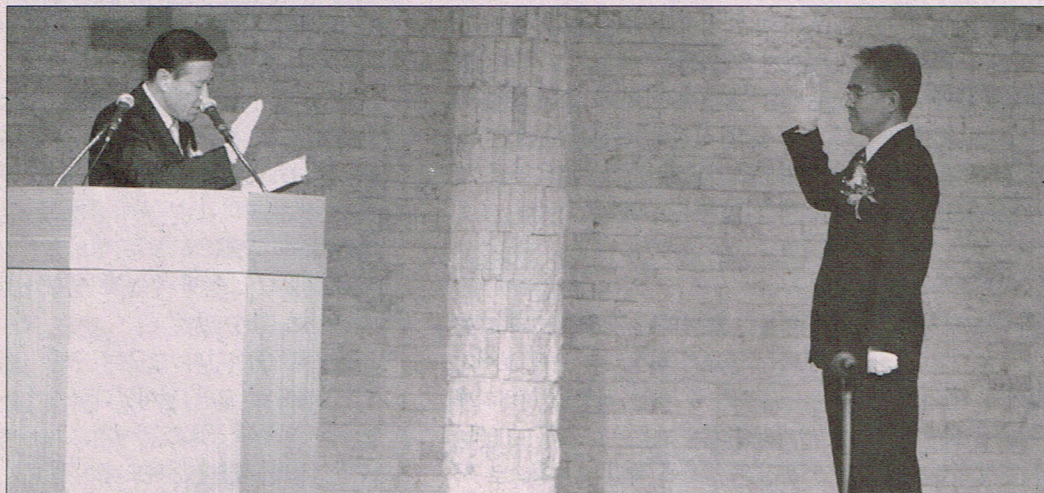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46 호 / 발행일 : 2003년 6월 15일

제3대 문동학 담임목사 위임

헌신하는 목회자와 교우되기로 다짐



문동학 담임목사의 위임예배를 6월 8일, 오후 2시 30분에 중예배실에서 노회장 김신국 목사, 전노회장 손달익 목사, 당회원 및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이 날 위임예배는 노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노회장 김신국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자세'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헌신의 의미와 진정으로 헌신하는 목회자와 교우들이 되기를 당부하였고, 문동학 위임목사는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답변으로 화답하였다.

당회원 전원이 준비한 특송과 한나숙 집사, 이단열 집사의 특송 순서는 위임예배를 한층 아름답게 만들

었다. 이로써 주님의교회는 1대 이재철 목사, 2대 임영수 목사의 뒤를 이어 3대 문동학 목사를 담임목사로 모시게 되었다.

의료선교부

6월 22일 전교인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의료선교부에서는 지난 6월 1일 주일, 안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하였으며, 오는 6월 22일 주일에도 전교인을 상대로 무료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있다. 접수는 대화의 방(지하)에서 받고, 진료는 5층 의무실이며,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검사 순서는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동맥경화 최신 진단장비를 이용한 검사와 비만도 측정, 그리고 혈액(혈당, 지질)검사가 동시에 시행되며, 검사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유의사항은 검사 전날 (21일 토요일) 저녁식사 후부터 검사 받을 때까지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한다. 40세가 넘는 모든 교인들은 꼭 당뇨, 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을 검사하여 건강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이번에 사용하는 진단장비는 외국에서 널리 연구와 검사에 쓰여 그 정확도가 인증된 최신 장비로 심음(心音), 혈관맥파(血管脈波), 심전도, 사지혈압을 동시에 측정하여 동맥경화 정도를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의료봉사팀으로 수고할 의사로는 박호길 장로, 강윤식, 최상용 안수집사, 박혁동, 김광일 집사 등으로 의료선교부원 전원이 총동원되는 대대적인 봉사활동이다.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주님의교회의 하나되는 진정한 모습 속에 많은 교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다. / 정해춘 기자

수요예배시 입교, 세례식을 가져

입교자 5명, 세례자 25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대표로 5명의 간증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을 터뜨리게 했다.

6월 4일, 수요예배는 모두 30명의 입교, 세례식이 있었다. 5명의 입교자와 25명의 세례자로 이들은 그 동안 한 달간 주일마다 김병모 목사와 함께 복음을 새롭게 더욱 진지하게 돌이켜보는 시간과 문답을 한 뒤 드디어 수요일 세례식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 세례자들은 세례식 준비를 위해 강대상에 올라서 보면서 두려움과 설레임을 맛보고 있었다. 세례자들을 축하하러 온 많은 성도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세례자들의 웃차림은 단정한 정장차림으로 평상시보다 더욱 신경썼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문동학 목사는 세례자들에게 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당부를 한 뒤 물세례를 주지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

탁했다. 여섯 명씩 강대상에 나왔고 그 중 한 명이 간증을 하게 되었다. 대표 간증자로는 입교자 서옥숙, 세례자 고동희, 박민영, 이말숙, 최현근이다. 세례받기 전 간증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세례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 후 문동학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세례를 주었다.

입교, 세례 간증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였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럼에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허하게 되새겨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었다.

모두들 세례를 받자 성도들이 꽃을 들고서 천사들의 행렬처럼 줄지어 나왔는데 그들은 입교, 세례자의 친척, 친구, 가족, 구역식구들이었으며 나와서 꽃을 전달하고 같이 열싸안기도 하며 예배당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다. 연이은 목사님의 '지금 분명 하늘

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을 것이다. 하나님과 구름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감격에 겨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4주간의 입교, 세례교육

모두 초심의 마음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장년 입교 및 세례 교육이 지난 4월 27일, 5월 4일, 11일, 18일 4주간 오후 1시 15분부터 2시까지 3집회실(1층)에서 있었다. 청년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교우들, 약 30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다.

김병모 목사의 인도로 첫 제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한 주마다 한 가지의 주제로 공부하였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과 교회'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이었다. 늘 접하는 주제이지만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위의 개념들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풀어졌다. 교육을 받는 동안 모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세례문답이 6월 1일 오후 1시 15분에서 2시까지 중교수련실(2층)에서 있었다. 5~6명이 한

팀이 된 5팀이 각 팀별 수련실로 들어갔다. 담당목사와 장로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였다. 4주간 교육 받은 것과 살아오면서 느꼈던 신앙의 문제들이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졌다. 세례문답 후 한 사람씩 짧지만 진지한 신앙고백의 시간을 가졌다.

중보기도사역자학교

기도에 대해 알고 싶고, 의문점을 가지고 배우고 싶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시간!

목요일 8시에 정신여고 소강당에서 중보기도사역자학교가 계속 열리고 있다. 1강 '기도, 그 사귀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기도란' '중보기도란' '중보기도자란' 무엇인지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강의는 그동안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짚어나가며 말씀을 깊이있게 살펴보고 하고 말씀 안에 있는 기도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막연하게 홀로 기도하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막막하기도 하고 의문점이 들 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데 마치 너무나 귀하고 달지만 몸에 좋은 필수약과도 같은 시간이다.

지난 6월 5일은 찬양을 한 뒤 시편 5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연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8강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시작되었다. 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사항들을 말씀에 나오는 인물과 신약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며 목사의 기도의 깊은 경험을 나누어주고 있다. 임혜성 청년은 '목사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기도함에

대해서 더 간절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중보기도자학교를 나오면 평생동안 기초적인 훈련이 되어 재산이 될 것 같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도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거나 가정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길 원하는 분이 와야 될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중보기도자학교는 개인의 소원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이는 곳도 아니다. 기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 기도의 한계점을 느끼는 사람이나 기도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점을 갖는 사람, 기도 전에 기도를 배우고 싶은 성도들에게 열려있다. 6월 26일까지 계속되는 중보기도사역자학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이다. 이 값진 시간의 끝시간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5월 21일 5교구 수요일 발표

자녀와 더불어 모든 교구 성도들이 하나된 시간

5교구 5월 21일 발표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연주와 함께 중등부 안수현 양이 천사처럼 아름다운 워십 발레로 시작되었다. 5교구 식구들이 교제하며 준비했던 몇 주간의 좋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찬양의 무대를 바라보는 듯한 마음은 다음 순서를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성령의 새바람'을 갈급해하며 김창안 집사의 외침으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찬양을 모두 박수치며 한 목소리로 올려드렸다. 다음 순서는 수화찬양 '하나님께로 가까이'를 드렸는데 모두 성령충만한 가운데 그동안 충분히 연습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60여명의 교구 식구들이 기쁨으로 모인 날이었다. 바이올린 임주연, 첼로 정세현, 최수진, 플루트 김윤환, 하모니카 김소영 집사, 기타 김동근 집사. 악기까지 모두 동원하여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였다. 유년부 정상현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란 메아리를 뒤로 하고 김동근 집사의 섹스폰 연주를 끝으로 5교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 날이었다. / 이종은 기자

성지순례시리즈 6

바울의 고향 '다소'

실루키아에서 안디옥을 거쳐 다소로 가는데 거의 4시간이 소요되었다. 아다나 지역을 지나면서 창밖으로 검은 빛깔의 비옥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다. 한 겨울인데도 파란 색이 나있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느낌이 절로 들었다. 1년에 다섯 번까지도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앗수르, 바벨론, 바사(페르시아), 헬라제국, 로마제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이 길리기로 불렸던 이 지역을 왜 그토록 열망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물끄러미 들뜬 정경에 취하다가 갑자기 다소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 보았다. 키두누스강이라 불리는 다소강의 오른쪽 평원에 위치한 다소는 길리기의 정치적 수도였다. 로마시대에 완전한 자치권을 누린 도시였으며, 소아시아에서 학문과 문화의 중심도시였다. 다소강을 따라 항구들이 있어서 화물 적재에 유용했고, 다소산맥에는 대상들이 드나들 수 있는 대상로가 잘 닦여져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 바울이 이러한 도시에서 성장한 배경이 훗날 도시 중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전개할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동행한 현지 목사가 추론을 하신다.

다소에 도착한 때는 오후 4시 30분경, 이 곳 겨울철은 생각보다 빨리 해가 졌다. 석양에 지는 해가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소읍 출신이 아니라 길리가 다소성의 시민이라고' 바울이 자랑했던 그의 고향 다소는 생각보다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이었다. 키두누스강이 도심으로 흐르면서 홍수를 유발하자 다소 시민들은 그 강이 시를 위협해서 흐르도록 유로를 바꾸었다. 그러자 토사가 쌓이고 바다가 멀어지게 되었으며 점차 항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기능이 아다나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다소는 역사의 주무대에

서 멀어져 갔다는 것이 터키 고고학자의 설명이다.

차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어서, 관리인이 문을 열어준 '바울의 우물'에 도착했다. 다소에서 바울의 삶의 흔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우물뿐이었다. 다소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작 평범한 우물뿐이라니... 적지 않은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 순간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에 왔는가?'를 묻는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 문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왔다. 보이는 우물만을 바라보라고 여기까지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닐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의 우물'을 생각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우물은 바로 신약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말씀이 아니던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늘 몸서리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성지'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디든 아버지의

영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종교적 허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심령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거의 5,000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이름으로 서 있는 다소를 뒤로 남겨두고 가파도키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보이지 않는 바울의 우물을 펼쳐 들었다. 길리기의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 하화주 집사

브니엘찬양대

수요일예배를 찬양으로 드리는 기쁨

수요일 오후 6시 50분부터 지하 성가연습실에서는 서둘러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바로 교회로 오는 브니엘 찬양대원들이다. 찬양을 하면 마냥 즐거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다. 비록 직장

에서 힘들지라도 찬양을 하노라면 피곤도 짝 사라지는 사람들이다.

박찬범 지휘자는 짧은 시간동안 화음을 맞춰 찬양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몹시 촉박할텐데도 여유로운 얼굴과 유머스러움을 잊지 않는다. 좋은 예를 들면서 찬양함에 있어 바른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찬양에 박자와 강약이 있음을 강조하며 찬양대원들의 목소리가 합해지도록 시범을 통해 이끌어간다.

서둘러 예배에 들어가기 전 줄을 맞추고 성가대 좌석에 앉는다. 강대상 바로 옆에 앉아 있음이 저절로 기쁨이 샘솟는다.

브니엘찬양대가 생긴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야곱이 예서를 만나기 전 천사와 씨름하던 장소가 '브니엘'이다. 이처럼 브니엘찬양대로 불려진 이상 야곱과 같이 여러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끝내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매어달리는 찬양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브니엘찬양대는 항상 열려있다. 찬양대원이 되어 수요일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시는 분은 수요일 오후 6시 50분까지 지하연습실로 오면 가능하다.



이제 진정한 공중목욕탕으로 거듭나길.....

6월 4일 세례를 받은 박민영 자매의 간증문

주께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신 때는 고3 초기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내리게 된 것은 정선여고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과 학교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집안의 분위기는 대대로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교의 가풍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에게 내려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난 저는 청소년기가 되어서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의 성격은 뼈뼉이만 가고 오만과 자만심과 자괴감 그리고 남을 향한 질투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위의 친구를 밟고 일어서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하루의 일과였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했으며, 남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신 때는 고3 초기였습니다. 때가 때인만큼 저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남에 대한 미움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항상 저를 전도하려고 준비한 친구의 기도덕분인지 그 친구와 같이 주님의교회 고등부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물론 고등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곧바로 저에게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는지 바로 저에게 윤좌원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분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죄와 그 죄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 리심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 낄만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아가페적 사랑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 었습니다. 결국 그 때 하나님을 영접하 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를 기 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때 이후로 삶에 대한 저 자신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 금도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지만 확실 하게 달라진 것은 그 시련을 받아들이 는 저의 태도와 주님께 믿고 맡기는 긍

장미꽃이 화사하게 핀 이유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대로 남모르게 숨어서 봉사해온 분들이 있다. 김영중 안수집사(7-11구역)와 최중명 집사(6-1구역), 바로 두 분이다.

매주 일 아침 일찍이 김영중 안수집 사는 화곡동 자택에서 완전무장을 하

정적 사고의 변화입니다.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몇 차례의 실패로 좌절 감이 분명 있었습니다. '만약 그 때 믿 음이 없었다면'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을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 다. 결국 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 의 사람이란 걸 만방에 선포하려고 합 니다. 이번에 받은 세례로 말미암아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저 박민영이 진정 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를 주님의 한 마리의 양으로 선택 하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 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독생자 예 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서 절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고 교회에 나와서 최중명 집사를 만나 6시에서 7시까지 어김없이 환경미화원 처럼 교회와 학교 담장 주변 그리고 전철 입구까지 온갖 휴지와 오물을 치우고 있다.

또 비료를 사서 담장 주위에 심어놓 은 넝쿨 장미와 교회 앞마당 화초에 시비를 하며 정성껏 가꾸어주시는지 올 해는 예배드리러 오는 길이 유난히 깨끗하고, 또한 장미꽃과 다른 여러 꽃 들의 봉오리가 크고 화사하게 피었다.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예배시 사회자는 '인도자'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지칭하 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 회(司會)라는 말은 회의나 의식을 진행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 으며,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사회 자라고 하면 마땅히 일반회의의 진행자를 의미한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 닌 결혼예식이나 임직식 같은 인 간 중심의 의식에서는 진행을 맡 은 사람을 사회자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현장에서 사회자라는 명칭은 경 건성의 결여를 느끼게 하므로 단 순한 사회자(presider)의 개념을 넘어서 예배 인도자(Worship Leader)로 부름이 타당하다. 인 도(引導)의 사전적 의미는 '알려 주며 이끄는 일'이므로 예배 인 도라는 말을 회의에서의 사회와 구분지음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교단 1998년 총회에서 통과 된 표준 예식서에는 모든 예배의 진행자는 인도자(引導者)로, 성례 전과 같은 예전의 경우는 집례자 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앞으로도 두 분 집사의 남다른 숨은 봉 사는 계속 되어질 것 같다.

신앙수기 ② 이 글은 수요일예배시 이재철 집사(5-10구역)의 간증문으로 이 간증을 듣지 못한 성도와 들었지만 다시 글로 접할길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요약정리하여 지난 호에 이어서 연재한다.

현대건설 '이란 스타스' 현장



스타스교회가 문을 열자 그동안 음지 속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문을 두드렸고 교회 일을 스스로 맡아보 는 형제들도 구성되었다. 우리는 하 나님의 집을 너무나도 갈망했다. 활 짝 열린 교회, 누구나가 다 와서 기 도드릴 수 있는 주님의 집이 탄생하 면서 현장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 은 기독교 신앙을 보여줄 수 있게 되 었다. 교파를 초월한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였고, 곧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전도 가 될 수 있었다. 우리 또한 그 작은 제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었다. 그 향기는 이윽고 현 지인들에게까지 퍼져 나갔다.

이렇게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교우들이 한국인만 60여명으로 늘어 나게 되었고, 또한 삼국인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다. 우리뿐 아니라 천주 교인들도 모일 수 있게 되도록 예배 시간도 조정해야 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성가대를 결성하여 찬양도

드렸고, 악기도 구입해 복음성가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은혜로 운지... 특히 그 곳에서 같이 지냈던 교우들 중 김영일 집사라는 분은 우 리 중 유일하게 선교활동을 지속적 으로 해왔던 분으로 우리 모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였다. 월요 일 저녁이면 삼국인들의 예배를 인 도하여 삼국인들의 모임에 현지인도 4명이 새로 참석하여 예수를 맞이하 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들의 활동을 보고 예수를 믿어보기로 작정하였는 데 만약 부모가 알면 자기들은 엄벌 을 받게 된다며 두려워 하기도 하였 다. 우리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눈 물로 기도하였다.

그 해 연말 성탄예배는 우리에게 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서로 기도하던 중 성탄절에는 예수를 아 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흥보하였다. 예배 드리기 위해 넓은 식당을 빌렸는데 한국인, 인도인, 필리피노, 그리고

현지인 등 아주 많은 형제들이 참석 하였다. 특히 많은 이란인들이 참석 한 것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찬양예배를 드리고 새벽송을 돌려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이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은혜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여 캠프를 돌며 예수님의 탄 생을 알릴 수가 있게 되었다. 최종적 으로 길게 인간 띠를 형성하여 이란 인들의 캠프 앞에 진을 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탄생을 전하였다. 수 천 명의 이란 현지인들이 나와서 놀 랐 눈으로 구경을 하며 "코리안 크리스마스 넘버원"을 엄지 손가락을 세 우며 외쳐대기도 하였다. 하나님은 믿고 행하는 자를 눈동자와 같이 보 호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2001년 9월 3일은 우리에게 악몽 과 같은 날이었다. 그 곳에서 성공적 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회 사를 현지회사들이 몰아내려 전문가 를 고용하여 캠프내에서 대폭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한 밤 중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폭도로 변해 삼국 인 캠프는 물론 우리 한국인 캠프를 철저히 파괴, 방화하기 시작했다. 닥

치는 대로 부수고 모든 물건을 탈취 해 갔다. 그 때 나는 방에 앉아 간절 히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신앙도 깊지 않은 내가 그 순간에는 왜 그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지... 밤 을 새워 다섯 차례 폭도들이 휩쓸고 간 후에야 군인들이 출동하여 진정 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엔 초토화된 잔 재만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화재가 났었 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리 한 장 깨지지 않고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이었다. 그렇게 방문을 잠궜도 도둑 이 들끓는 그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은 종이 한 장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들도 하나님의 전을 기억 하였던 것이리라. 또한 모든 방이 다 텅리고 파괴되었는데 내 방만은 건 재하였다. 내 자신도 무척 놀랐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먼저 하나님 아 버지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 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곤 고하게 하시며 그 때마다 우리를 시 험도 하시다가 더욱 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끝>

성도기고문

아버지는 '소중한 믿음의 불씨'를 자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강직하게 살아오신 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의가 상당히 강한 분이셨다. 그리고 법조계에 계시면서 종교계의 분쟁을 많이 보아 오셨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면도 있었고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아주 현실적인 분이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위암말기 몇 개월 시한부 삶이라는 의사 진단이 나왔을 때 나는 제일 먼저 영적준비를 하실 수 있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하고 종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아버지께 영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눈 앞에 거대한 절벽을 보는 것 같이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버지 병세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도 나는 설불리 말을 꺼내기가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아버지께서 '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나는 이 때다 싶어 "아버지, 영적 세계가 없다고 하

시더니 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아버지께서도 결국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많은 교우들에게 부탁드렸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리라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기진해서 누워계신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울면서 "아버지 부탁이에요. 목사님 한 번 만나보세요." 그전과는 다르게 의외로 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래라."

그 후 병원 응급실에서 김병모 목사님을 처음 만난 아버지는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셨다. 아버지는 목사님을 만나자 "내가 죄가 많아요. 죄인이지요."라고 하셨다. 당시 우리 가족은 차마 아버지께 위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 심한 위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때도 당신의 병이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많은 참회의 고백을 하셨다. 마침내 목사

님께서 "구원을 믿으십니까? 윤 선생님,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라고 물으셨고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선선히 "네."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순종적인 모습에 너무 놀랐고 제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는데 나는 그동안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렸다.

많은 가족이 모인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통증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 후 육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습은 병원에서 '이쁜 할아버지'로 통할만큼 맑고 평안하셨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던 날, 다른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 30분동안 나는 아버지와 단 둘이 많은 영적인 교감을 나누었고 아버지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렸고 그리고 평안히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면서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소중한 믿음의 불씨'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을... / 윤희진 집사(8·6구역)

초등부 달란트잔치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피곤을 모두 잊어

지난 6월 8일 주일, 초등부에서는 상반기 초등부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기 위한 달란트잔치를 하였다.

황병기 전도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함께 '달란트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를 마치고 처음 온 친구소개에 이어서 달란트잔치 행사를 가졌다.



너무 화창한 날씨 속에 정신 교정 후문에 위치한 등나무 아래에서 떡볶이, 라면 등을 준비하고, 주위에선 솜사탕을 만들기도 하며, 풍선을 붙여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장식하기도 한다.

음식준비 파트, 장식 파트, 물건 판매 파트로 나뉘어 수고하신 선생님들, 아이들의 무척 즐거워 하는 모습

에 준비과정 등의 피곤도 모두 잊고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하반기 평가를 위한 달란트 잔치를 학기말에 또 가질 예정인데 그 때는 어떤 모습으로 초등부 선생님들이 준비할지 무척 기다려진다.

청년부

6월 22일 주일에 '전교인 문화공연' 계획

아름다운 크리스천 문화 공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년부 주관으로 6월 22일 4부예배를 「전교인 문화공연」으로 특별하게 준비한다. 당일 행사 공연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CCM 가수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 진승희 자매의 '찬양간증'과 12기들의 '워십 댄스' 그리고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 지체들의 아름다운 '악기 연주'를 통한 열린 예배, 2부는 청년부 찬양팀인 '새벽이슬'의 오프닝으로 시작하여 청년부 자체 동아리인 워십팀 '영혼' 및 '혼성중창팀', 그리고 시각 디자인팀의 '동영상 발표회'와 게스트로 '무지개찬양대' (본교회 초등부)와 CCM 가수 '장

윤영'과 흑인영가를 현대풍으로 리메이크한 CCM 그룹 '믿음의 유산'이 함께 참여한다. 3부는 청년부가 준비한 다과와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청년부가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귀한 공연인 만큼 아직 4부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청년 지체를 자녀로 둔 가정의 교우들과 많은 성도들이 함께 4부예배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크리스천 문화공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수집사회

6월 22일 '정기총회'

58명의 안수집사의 회장을 뽑는 정기총회가 6월 22일(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제 3집회실에서 열린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있고, 이어서 신임회장 선출과 식사 및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안수집사회 회장은 1년의 임기이지만 막중한 책임과 소명감을 가져야 하는 교회의 중직이다. 그동안 하승락 회장의 대과 없는 임무 수행과 숨은 봉사가 매우 돋보인다. 중임을 맡을 훌륭한 차기 회장을 기대한다. 안수집사 전원의 적극적인 참가와 건설적인 건 개진을 바라마지 않는다.

교회소식

▶교회 홈페이지 시험운영

교회 홈페이지가 www.pcltv.org에서 현재 시험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설교동영상은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교회창립기념주일

6월 29일은 15주년 교회창립기념주일로서, 이재철 목사께서 1, 2, 3부 주일에배 설교합니다.

▶시무장으로 퇴임식

6월 29일 3부예배시에 김도목, 홍근용 장로의 시무장으로 퇴임식이 있습니다.

▶창립기념음악회

6월 25일 수요일예배는 대예배실에서 창립기념음악회로 드리며, 출연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라노: 이영혜
- 테너: 민경원
- 합창: 호산나찬양대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 지휘: 박영주
- 반주: 김시원, 송민선

▶청년부·교역자 친선축구

6월 29일 오후 3시에 정신여중고 운동장에서 청년부와 교역자간의 친선 축구경기가 있습니다.

교우소식

▶시온찬양대 베이스 파트장 박혁동 집사의 부친 고 박대선 장로(부산동산교회) 영결식에 찬양대원 및 교우들의 참여와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장승수 안수집사(2-6구역, 장길수, 김선례, 나선일, 임채권, 장금옥)의 모친 고 유점임 성도의 상고에 교우여러분들의 위로와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백술 장로(3-11구역)의 내자 고 오병희 권사의 영결식에 많은 교우들이 일산까지 오셔서 애도와 위로를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02-416-5181
홈페이지: www.pcltv.org

◆기사제보안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줄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011-466-4736
▶이메일: chhylee@korea.com